

인천대공원 봄 · 가을 · 겨울 행사 개최

- ❖ 인천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시민들이 타지역을 찾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
- ❖ 이를 해소하고 인천만의 특색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자 인천대공원에 계절별 행사를 개최하여 인천 시민의 애향심과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

I 제안내용

□ 제안 내용

○ 봄 행사

- 대공원 호수(湖水)에 수상(水上) 스크린을 설치하여 대공원 벚꽃 피고 질 시기에 맞춰 야간에 영화 상영
 - ※ 인천대공원 벚꽃 잎이 하나둘 떨어질 때 아련한 이별과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여 시민의 추억만들기 기여 : 5월 초 14일간
 - ※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외국 영화도 일부 상영
 - ※ 스크린을 3~4면으로 제작하여 호수 주위 어디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
 - 수상 무대는 행사 후 재사용하여 호수내 다리(浮橋) 및 가을·겨울 행사에 사용

○ 가을 행사

- 호수에 수상 무대를 설치하여 마당극·가곡 등 야간 공연
 - ※ 인천대공원에 살짝 찬 바람이 스며들 때 호수 위 수상 무대에서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마당극(심청전)·소리(창)·가곡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: 10월 초 14일간
 - ※ 수상 무대는 봄 행사 시 사용한 스크린을 재사용하여 예산절감

○ 겨울 행사

- 호수를 동서로 절반씩 나눠 절반은 피겨 스케이트장으로 절반은 얼음(송어)낚시터로 만들고, 동쪽에 위치한 어울큰마당은 스피드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한시적 운영
 - ※ 전국에서 제일 넓은 야외 피겨·스피드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핫(hot)한 장소로 자리매김

- ※ 화천 산천어 · 평창 송어 · 홍천 인삼송어 축제만 축제가 아니라 인천에서도 송어 낚시를 할 수 있음을 전국에 알리고 인천시민의 추억 만들기에 기여
- ※ 타지역으로 나가는 시민과 주변 지역민도 흡수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부담 저감과 인천시 위상 제고 및 관광 명소화
- ※ 겨울 행사 기간 중 ‘인천시장배 피겨·스피드 경기대회’ 개최로 미래의 주인공 발굴·지원

○ 공통사항

- 봄 · 가을 수상 무대 영화 상영과 마당극 · 가곡 공연 등, 겨울 호수 스케이트장과 얼음낚시 행사를 연례행사로 개최하여 인천 시민에게는 추억과 자부심이 되도록 하고 타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방문하고 싶은 관광상품으로 개발

II 추진 방안

1. 문제점

○ 계절별 행사 경험 부재

- 행사 진행을 세밀히 기획하고 운영 등을 수행할 인천시 공무원 부재로 자체 시행하기 보다는 전문 기획사와 계약하여 행사 진행함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
- ※ 봄 행사 시 수상 스크린(무대 포함) 제작 및 영화 상영에 따른 영화배급·상영 기술 등
- ※ 가을 행사 시 공연 대상 선정·섭외·공연 등
- ※ 겨울 행사 시 스케이트장 설치·운영 등, 송어 낚품·방류 등, 매표관리, 입장객 출입관리·레슨 등, 스케이트·낚시대 대여 등
- ※ (공통) 입장객 및 관람객 등 안내·안전관리 등(공무원 동원 최소화 필요)

○ 호수 주변 조명 시설 필요

- 현재 호수 주변에는 공원등(燈)이 설치되어 있으나 행사에 필요한 밝기(조도)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명공사가 필요함

○ 수상 무대 설치 필요

- 계절별 행사가 호수 수상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무대(스크린 포함)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임

○ 호수 바닥 평탄화 작업(매립) 필요

- 현재 호수 수심은 깊이 차이가 불균형하여 행사에 적합하게 매립하여 일정한 수위(1~2m 내외) 유지가 필요함
- ※ 봄·가을 행사 시에는 수위를 높여야 하며, 겨울행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서 수위를 낮춰 행사장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함
- 지상 주차장 협소
 - 현재 지상주차장 2개소 주차면수로는 행사기간 방문차량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으로 주차장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 - ※ 지상주차장 2개소 증축(2~3층)이 필요하며 차량 출입(현재 정문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) 동선관련 대책 또한 필요함
- 대공원 내 상행위 규제 일시 해제
 - 대공원 내에서는 현재 상행위(푸드트럭·먹거리장터 등)가 일체 금지되어 있으므로 행사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해제
 - 특히 스케이트장과 송어낚시터 운영에 따른 송어 버터구이·회·군고구마 등 조리할 식당과 판매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봄·가을 행사 시에도 간단한 먹거리 장터 등 공간 필요

2. 추진방향

- 유관기관 협력체계 적극유지로 안전사고 제로(“0”) 행사 운영
 - 소방서(응급환자 이송 구급·구조), 경찰(범죄예방 및 교통통제), 기획사(행사진행 안전요원), 시설관리공단(주차안내) 등
- 인천대공원 계절별 행사의 주무대가 호수이므로 호수 내외를 행사 목적에 맞게 정비
 - 호수 바닥 평탄화 작업으로 바닥높이를 상향시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하며, 수질개선을 위해 우수 또는 한강 원수를 여과하여 사용하여야 함
 - 호수 주위에 영화 및 마당극 등을 관람하기 쉽게 수목 전정 및 의자 등을 추가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배치
 - 현재 호수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 밝기가 야간 행사에 부족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, 송어낚시터 및 피겨·스피드 스케이트장 야간 운영에 알맞은 조명설치가 필요함
- 봄·가을 행사와 겨울 행사 진행을 전문 기획사와 각각 계약 추진

- 행사 관련 개인·단체 섭외, 홍보, 진행 등 총괄 계약(약 5년)으로 매년 반복되는 계약업무 감소와 지속적 행사 진행으로 기술 업 그레이드(피드백)하여 안정적인 행사 추진 체계구축
- 공무원 지원(차출) 최소화로 행정업무 공백 방지
 - 최소의 인원으로 (가칭)인천대공원 축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절별 행사진행을 전문 기획사에 위탁(공개입찰)하여 사업 추진
 - 대공원 내 시설개선 등은 계절별 행사 성격에 맞게 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사업 시행
 - 호수 바닥 평탄작업, 의자 추가 설치, 수목 전정, 급수시설 추가 설치, 수질개선, 공원등 및 조명타워 설치 등
- 지역 소상공인 우선 배정 및 지역 청년 우선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 - 푸드트럭, 먹거리장터 등 우선 배정(주류판매 금지)
 - 행사 진행 요원 등 채용 시 지역 청년 우선 고용(계약 시 명시)

Ⅲ

정책실현 방법

1. 예산확보

- 사업실행 소요예산 : 전액 시비(100%)
 - 2023년 추경반영 또는 2024년 예산반영(확보)
- 소요예산 : 약 210억 원 (추정치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증·감될 수 있음)
 - (시설비) 약 130억 원
 - 평탄작업비 30억/조명설치비 20억/수상무대+스크린 설치비 20억/스케이트장+낙시터 설치비 60억/주차장 증축비 별도
 - ※ 초기 투입비용은 다소 많이 소요되나 재사용(내구연한 약 10여년) 가능한 물품으로 2년차 행사부터는 투입비용이 상당히 감소함
 - (운영비) 약 80억 원
 - 봄 15억/가을 15억/겨울 50억(운영 20억, 송어 30억)
 - ※ 겨울 행사 운영비는 스케이트장 및 송어낙시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
2. 조례 등 개정

- 인천대공원 조직 신설 : (가칭) 인천대공원 축제 추진단
 - 행정기구 설치 조례 · 시행규칙 개정
- 추진단 신설 후 예산담당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· 사업시행
- 기타 추진상의 문제는 추진단에서 조례 · 규정 등을 제 · 개정 등 시행

3. 사업적용 시기

- 2024년 5월 초 : 봄 행사
- 2024년 10월 초 : 가을 행사
- 2024년 12월 중~2025년 2월 중 : 겨울 행사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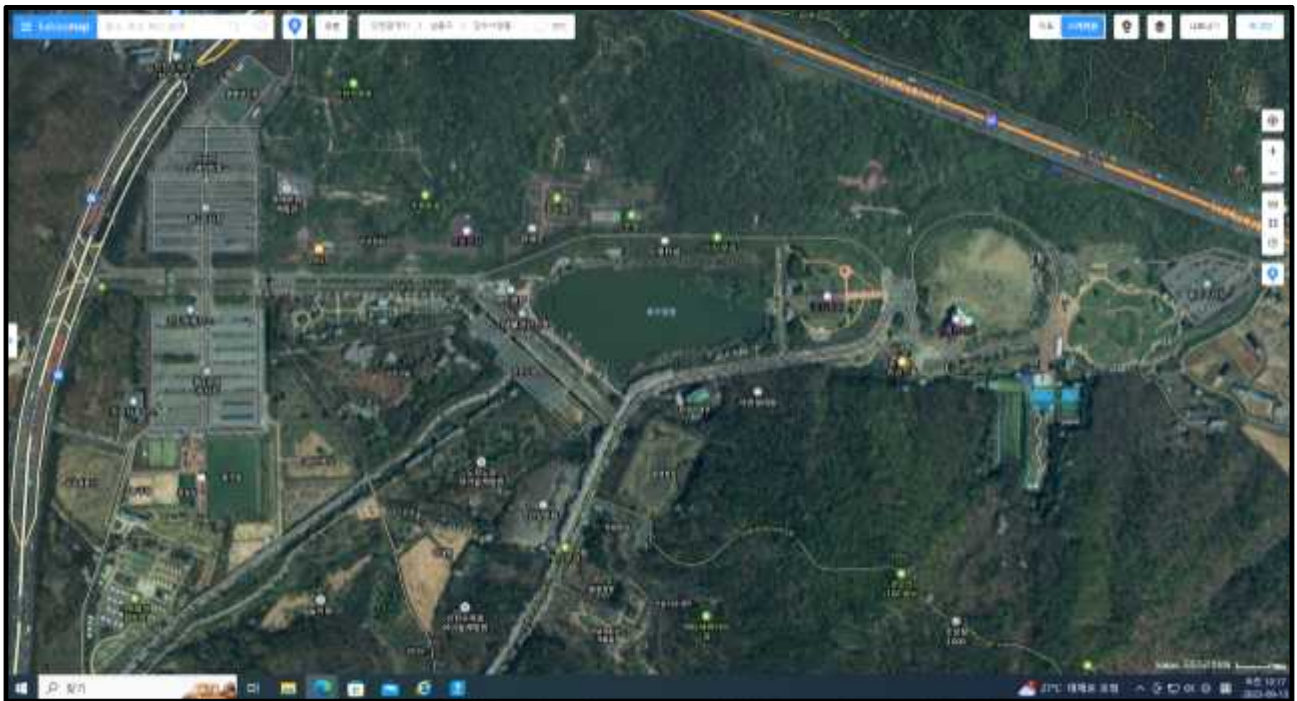
정책효과

□ 사업효과

- 인천시민의 추억만들기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하여 정주(定住) 만족도 향상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
 -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와 연계하여 봄 행사를 진행하면 인천시민에게 환상적인 추억으로 각인될 것으로 확신함
 - 인천대공원 낙엽 지는 시점에 우리의 마당극 · 가곡 등 가을 행사를 진행하면 가을 정취와 맞물려 운치 있는 공연으로 인천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음
 - 인천에서 강원도(화천)까지 평일 기준으로 왕복 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식사 및 숙박요금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가 소요되어 인천시민이 타지역 겨울축제에 참가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인천에 대한 기억이 하향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고 인천에 사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임
- ※ 비용지출·시간낭비·편리성 등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며, 첫째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2년차부터는 대부분의 시설물을 재사용하기에 일부 운영비만 소요되어 예산 지출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음
- 인천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

- 1년에 한번하는 1회성 행사가 아닌 1년 내내 이어지는 행사로 기획 시행 관광 상품화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
- 또한 송도센트럴파크공원 · 청라호수공원에도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으며 인천시민에게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

인천대공원 전경



계절별 행사 위치도(호수정원, 어울큰마당)

